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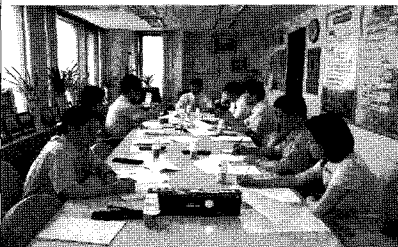
#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 긴급 회장단 회의 개최

양돈자조금관련 법 개정 및 왜곡 보도 대응 논의



우리 협회(회장 최영열)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4

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최영열 회장과 김동환 부회장, 이병모 부회장, 이재식 부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단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축산농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하고 타 생산자 단체와의 연계도 적극 검토

기로 했다.

또한 양돈자조금 관련 농민신문 왜곡 보도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회장단은 안건논의에 앞서 축산환경대책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사항, SEW사업장 매각 및 1검정소 이전 추진 내역,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 사항 등 협회 활동 및 양돈현안에 대해 김동성 전무로부터 보고받았다.

.....

## 자조금 운용, 축산농가와 단체 의견 최대한 반영되어야 본회,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우리 협회는 최근 농림부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조금 운용을 위한 별도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가 스스로 납부하는 자조금인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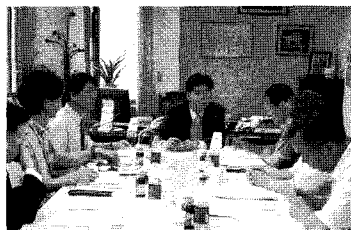
또한 동법 제3조 '축산자조금 설치'와 관련해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축산단체에서 하나의 자조활동자금

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해 하나의 축산단체가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본지 136page 참조>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이용 활성화 촉진해야”

본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견 제출



▲제3차 축산환경대책위원회 회의

최근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 우리 협회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와 과도한 벌칙조항에 대해 완화해 줄 것 등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7월 12일 동법에 대한 의견을 농림부와 환경부에 각각 제출했다.

우리 협회는 이 법률(안)이 '이용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는 등 규제와 처벌기준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 명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장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이 가축분뇨 자원화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며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11일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제3차 축산환경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한 후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본지 140page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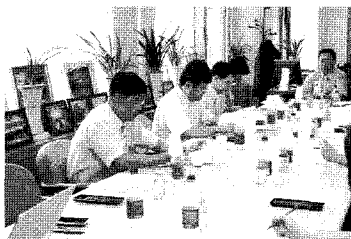
### 최영열 회장, 가축분뇨 액비 중요성 강조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서 밝혀



최영열 회장은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40분에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한 액비는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로서 이를 논밭에 뿌리는 것은 토양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축산 선진국의 경우 축산농가와 국민들 사이에 서로 축산업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



우리 협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가 양돈장 질병 실태를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양돈방역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수)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조사방법 및 조사시 역할 분담 등 조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전국 양돈장 질병 실태 조사키로

제2차 양돈방역대책위원회서 결정

양돈장 질병 실태조사는 오는 9월~10월 사육두수 1천두 이상 농가 중 60농가를 선정해, 이를 대상으로 1개 농장당 30마리씩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채혈시 설문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 대상 질병으로는 돈열, 돼지오제스키병, 홍막폐렴, 마이코플라즈마, 위축성 비염(AR), 일본뇌염, 회장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썩코바이러스(PCV-2),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파보바이러스, 돼지전염성위장염(TGE), 글래썬병, 살모넬라증, 파스튜렐라 폐렴 등 총 15개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은 “그 동안 돼지질병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규모별, 지역별 위생 방역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져 양돈산업 발전의 장단기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면 의미있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축산업도 농업, 소득세 감면되어야

-제3, 4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22일 제3차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월 2일 오후 3시 협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병모)를 개최하고, 축산업 소득세 감면과 지방세 전환, 사료관리법 개정 등 그동안 세차레에 걸쳐 거론되었던 제도 개선내용 등을 검토하고

성되어 있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실례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선진국에서는 공항이나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농경지라도 퇴비·액비를 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최근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삼겹살과 관련한 심층 보도를 통해 삼겹살이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축분뇨 처리 문제, 분뇨냄새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폐업 증가, 농장 이전의 현실적 불가로 인해 양돈농가들의 폐업이 늘어나는 등 돼지 사육두수가 줄어든 이유 등을 들여 양돈농가들이 안팎으로 처한 어려움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종(안)을 마련해 향후 농림부 건의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축산업 소득세 지방세 전환 및 위탁사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약품·양봉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삶은 계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이미 정부에 세제개선을 요청한 사항과 향후 장기과제로 고정자산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양돈장 이전시 양도세 유예 및 8년 이상 운영한 양돈장 양도시 양도세 면제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료내 문제가 되는 마이코톡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된 사료관리법 개선, 농지내 축사진입 규제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선점도 논의해 나갔다.

한편, 지난 6월 22일 제3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축산업도 농업이므로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축산업 소득세 감면 및 지방세 전환과 관련된 세법 개정 부분이 이뤄지면 약 200억 가량의 세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김태용 회계사가 밝혔다.

## 돼지사진 콘테스트 대상 "귀염둥이"

-양돈인과 돼지와 자연의 조화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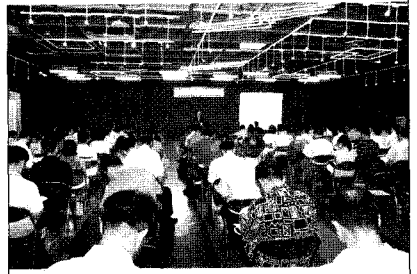
"귀염둥이"가 280여점에 달하는 우수한 돼지사진 작품들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을 차지했다.

우리 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7월 13일(수) 돼지사진 콘테스트 심사를 실시하고 전남 광주 박준홍 씨가 출품한 "귀염둥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우수상에는 최용운씨(경기 여주)의 "뛰어노는 모습"과 김세경씨(경기 가평)의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특선에는 조우준씨(경남 양산)의 "산책", 서기원씨(충북 제천)의 "사랑", 김명자씨(전남 광주)의 "산책"이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본지 125page 참조>

## 축산박람회, 참가업체 신청 폭 주 속 유료부스 "안전 매진"

-박람회 추진위, 업체 부스유치 설명회 성황리 개최

KISTOCK 2005(대회장 최영열, 추진위원장 윤희진)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7일 오후 2시 대전 무역전시관 EXPO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박람회 참가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참가업



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KISTOCK 2005 추진위는 7월 4일 현재 총 600여개 부스중 유료 부스는 국내·외 축산관련 176개 업체 533개의 부스가 확정되었으며, 국내 기관·단체 및 언론사, 해외 기관·단체 및 언론사 등의 홍보관 등 60여개 부스까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감시단체" 가축 방역에는 무관심

-환경부에 무분별한 감시활동 자제 요청

-농림부, 환경부에 방역복 착용 등 철저 이행 요청

최근 환경감시단체의 무분별한 감시활동이 양축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최근 농가에서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경감시단체에서 감시활동을 한다는 목적으로 방역복 착용이나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절차 없이 불시에 농장을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환경부로 "환경감시단체의 무분별한 감시활동이 주거침입죄 및 질병 발생시

피해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고, 환경감시단체도 환경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축 방역의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이와 관련, 농림부 또한 환경부로 환경감시원이 감시활동 시 가축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복 등을 착용하고, 소독을 철저히 이행한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돈열 백신 잊지 마세요!**

-1차 40일령, 2차 60일령 적기 백신 중요

양돈장에서 돈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각 도 협의회 및 지부로 돈열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돈열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항체양성율은 꾸준히 95% 수준이 유지됐으나, 지난해 경기 2건, 충북 1건, 전북 4건, 경남 2건 등 9건이 발생하고, 올해에도 충북 1건, 전북 4건 등 5건이 발생하는 등 돈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돈열 발생농장 등에 대한 분석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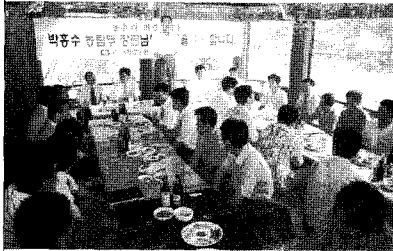
특히 혈청검사 결과 과태료 처분은 검사결과 항체양성율 80% 미만부터 적용된다.

한편 돈열 백신 접종은 자돈은 40일령에 1차, 60일령에 2차 접종

을 실시하고, 모돈과 후보돈은 1년에 1회 접종해야 한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경남도협,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간담회 가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경남 거창 소재 견계정에서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을 비롯 이재식 부회장, 하태식 경남도협의회장, 민기현 거창지부장, 여영성 창녕지부장 등 우리 협회 임원·지부장 등 양돈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최근 양돈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홍수 장관은 "양돈산업은 주인인 양돈인 스스로 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가되 정부는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양돈지도자 한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장관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양돈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본지 105page 참조>

**충남도협, KISTOCK 2005 참여 방안 협의**

충남도협의회(회장 남성현)는 오

는 8월 31일 개최되는 2005 한국 국제축산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도협의회는 지난 7월 6일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 7월 월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으며, 이와 함께 8월초에는 충남도 축산과에 양돈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산 돼지고기의 유통 등 보호를 위해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도 활발히 할 것을 다짐했다.

**논산지부 창립 총회 및 현판식**



우리 협회 논산지부 창립총회가 지난 7월 6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돼, 최영열 회장을 비롯한 임성규 논산시장, 기관단체장, 논산시 양돈인 등 참석자들은 논산지부의 본격적인 출발 테이프를 끊었다.

앞으로 논산지부는 오래 전부터 논산양돈연구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이규철(한라농장대표·논산축협 이사)회장이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돼 지부를 이끌어가게 된다.

한편 이날 최영열 회장과 이규철 지부장, 임영봉 논산축협 조합장 등은 논산축협 본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논산지역 양돈인의 힘이 결집된 논산지부의 발전을 기원하

며 양돈농가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격려했다.

**연기지부, 양돈농가 애로사항 해결책 모색**



연기지부(지부장 이성권)는 지난 7월 14일(목)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이 지부를 방문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다.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최영열 회장을 비롯해 연기지부 이성권 지부장, 이재광 사무국장장과 연기군청 홍영표 축산계장, 연기농업기술센터 이현학 축산계장, 연기지부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최영열 회장은 최근 양돈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철원지부, 돼지고기 홍보행사 "풍성"**

철원지부(지부장 성시명)가 여름철 행사로 돼지고기 홍보 행사 계획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철원지부는 철원군 고석정 국민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과 철원군민들을 대상으로 7월~9월 3개월간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행사를 개최기로 했다.

따라서 8월 6일(토)에 주 행사

를 열고, 7월에서 9월 3개월 동안 총 28일의 보조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철원지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홍보를 펼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촉진 및 양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지부, 하절기 무더위 대비 교육 시간 가져**



김해지부(지부장 이재식)는 지난 달 24일 지부 사무실에서 6월 월례회의와 함께 김해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식 지부장과 회원 등 양돈농가 80여명이 모여 교육을 받고 세미나와 관련해 논의했으며, 교육 관련 세미나는 유로하우징 신일식 대표가 참석해 '여름철 돈사의 방서대책 및 환기 요령'에 대해 강의했다.

**영천지부, 하절기 사양관리 등 양돈현안 논의**

영천지부(지부장 권춘구)는 고려 BNP 유성한 차장의 '하절기 사양관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최근 양돈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천지부는 지난달 23일(목) 권춘

구 지부장, 김봉운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회의에서 여름철 사양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항생제 규제에 따른 항생제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권춘구 지부장은 "해양수산부에서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상당히 줄이기로 했다"며, 각 농장에서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제천시부, 최영열 회장 방문 최근 양돈현안 논의**



제천시부(지부장 김병화)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활동 및 가축분뇨 이용 등 최근 양돈현안에 여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천시부는 지난달 30일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이 방문하고, 김병화 지부장과 전태재 총무, 장재우 축산계장 등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최 회장으로부터 최근 양돈현안과 협회 활동 사항 등 설명을 듣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사료가격별 품질 차이, 농산물품질관리원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시부, 여름철 방역 만전 다짐**

양주시부(지부장 조운상)는 지난 6월 13일(월) 조운상 지부장 외 회원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의를 열고 여름철 방역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양주시청에서 주관하는 방역교육이 실시돼, 참석자들은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김태주 박사의 최근 질병상황 및 대책에 대해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부, “우리 돼지고기가 웰빙입니다”**



포천시부(지부장 박호근)는 양돈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토) 제2회 포천시 축산페스티벌 행사에 맞춰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열고, “건강에 좋은 돼지고기” 홍보를 펼쳤다.

포천시 산정호수 국민관광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돼지고기 무료시식회와 더불어 축산기자재 및 새끼돼지 전시, 축산체험 학습장 등이 함께 열려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의 “맛”과 “영양”을 동시에 전달했다.

**보성지부, “국산 돼지고기 돈가스 맛보세요”**



전남 보성지부(지부장 선희기)는 제31회 보성 다항제 행사를 맞아 지난 5월 보성종합운동장에서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홍보 시식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향후 돼지고기 소비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의 맛을 소개해 뜻깊은 행사로 자리 매김했으며, 이 외에도 3천여명의 군민이 방문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돌아갔다.

**의성지부, “청정 돼지고기 몸에 좋아”**



의성지부(지부장 박흥태)는 지난 5월말 몸에 좋은 청정 돼지고기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의성지부는 의성에서 열린 제2회 전국 노인 전통기능 경진대회를 맞이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 행사

를 마련하고, 행사에 참석한 2만여명의 관중들에게 국산 돼지고기 시식 코너를 제공했다. 의성지부는 이날 행사가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울산지부, 축산업 등록제 적극 동참키로**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는 지난 6월 16일 지부 사무실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축산업 등록제 적극 동참키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국 지부장 외 30여명의 회원 등은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과 관련해 분노 해양배출량 감축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악취방지법 및 축산업 등록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양돈정책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상국 지부장은 협회에서 진행 중인 “예쁜돼지 사진 콘테스트”에도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산·태안지부, 사무실 이전**

서산·태안지부(지부장 윤석환)는 지난 6월 13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산·태안지부는 앞으로도 양돈산업 전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부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 ▲이전 사무실 : 충남 서산시 동문동 795 (우) 356-010
- ▲전화 : 041) 664-0909,
- ▲Fax : 041) 667-5533